

현대차 노조 끝내 파업 강행 사측·정부 강경 대응

단체행동·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재계 “노사문제 미온 대응 한계” 지적

연말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여야, 경제계가 파업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울산지법에 ‘불법단체행동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강경대응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낮 12시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수천명의 조합원이 모여 중앙경제대책위원회 출범 및 파업철폐를 갖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주간조가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정식에서 사측에 ‘성과급 추가 지급과 보충교섭’을 촉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파업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주간조에 이어 야간조도 16일 오전 2~6시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파업에 따른 사측과 협력업체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부터 산업·특근거부와 이날 부분파업으로 자동차 생산차질 1만7천977대, 2천6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적지않아 일부 영세업체들의 절도산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사측은 15일 노조와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등)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

회사는 신청서에서 “노조의 임시 대의원대회 파업결의는 무효”라며 “노조는 파업 등 일체의 불법행위 중단과 농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본관 로비 농성장 및 본관 앞 텐트농성장 등을 즉각 철거하도록 하는 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노조가 불법 단체행동을 하거나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하루 5천만원, 나머지 간부 21명은 30만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은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박 위원장과 30여분간 만나 “성과급 차등지급은 지난해 노사합의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파업 철폐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무조건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사장과의 면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회사에 있으며, 16일 사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이후에도 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 울산시민들은 물론 경제계 및 정부와 여당은 파업철폐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는 지난 14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 되는 만큼 파업계획이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한데 이어 15일 공동대응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노사문제 미온 대응 한계왔다. 강경노조에 발목잡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15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말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해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파업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실정법과 국민경제, 국민정서를 무시한 불법파업을 즉각 철폐하기 바란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생산라인 ‘스톱’ 15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현대자동차 3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서 있다(위). 이 파업으로 울산시 북구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덕양산업의 자동차 계기판 생산라인의 가동도 동시에 중단됐다(아래).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부품을 실시간 조달하는 체계(Just-in time) 때문에 자동차의 생산가동이 중단되면 협력업체 생산라인도 동시에 멈추게 된다. /연합뉴스

쫓기는 현대차 러시아서 포드에 1위 내줘

연초부터 노조의 파업에 현대자동차가 휘청하고 있는 사이 인도, 러시아, 중국 등 현대차의 주력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수입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2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미국 포드가 차지했고 현대차는 인도시장에서 현대차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와 현대, 미국의 포드, GM, 유럽의 BMW, 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다국적업체들은 최근 경기 호황으로 현대차가 아성을 굳히다시피한 인도, 러시아, 중국에 대한 공략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대차 인도가 현대차를 따라잡기 위해 1억5천만~2억 달러를 들여 뉴델리 인근에 2009년까지 연산 5만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기존공장의 생산력을 연말까지 10만대로 두 배 키우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인도시장에서 현대차는 18.5%의 점유율로 2위에 올라섰다. 현대는 4위(5.4%), 도요타는 8위(1.2%)에 불과하다.

현대차의 새 공장 규모는 기존 인도 공장보다 3배 이상 크고 최고 연 20만대까지 생산능력을 늘릴 수 있어 향후 현대차의 인도 생산량은 30만대로 대폭 증가한다.

러시아 수입차시장에서는 포드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작년 11만6천대를 팔아 현대차(10만1천대), 도요타(9만6천대)를 제쳤다. 러시아는 현대차가 2004~2005년 1위를 지켜온 시장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현지 현대차 딜러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작년 7월 이후 제때 차가 들어오지 못해 상당수 고객들이 다른 외제차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車 보험료 줄줄이 인상

내달부터 5~7%...운전자 부담 커져

자동차보험료가 다음 달 중순부터 5~7% 인상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진 데 따른 것이지만 그만큼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전 차종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대형차는 5%, 중소형차는 6~7% 가량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약 갱신자부터 적용된다.

제일화재는 내달 중순 전차종 보험료를 평균 7.5% 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또 대한화재는 다음달 말에서 3월 초 평균 5~5.6% 범위에서,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중·하순 약 6%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생명화재와 그린화재는 다음달 중순, 한화손해보험은 3월 이후 인상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다음달 또는 3월경 5%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현재 최근 1년간 손해율 추이

■**업체별 車보험료 인상폭 및 예상시기**

업체명	인상폭	인상시기	업체명	인상폭	인상시기
동부	5%	2~3월	제일	7.5%	2월중순
LIG	5%	2~3월	대한	5~5.6%	2월말~3월초
현대	미정	미정	그린	미정	2월중순
삼성	미정	미정	흥국생명	미정	2월중순
메리츠	6%	2월 중하순	한화	미정	3월이후

를 감안해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자동차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온라인 보험사들도 아직 인상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형 오프라인 보험사의 인상폭을 뒤따라가는 예년 경우에 비해 5% 안팎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5%로 전월인 10월(77.6%)에 비해 5.90%포인트 급증했으며 작년 12월 손해율도 11월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재정부, 이자제한법 부활 검토

IMF때 폐지 9년만에 고금리 부담 벗어날 듯

‘시장기능 제한’을 이유로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해온 재정경제부가 의원 입법을 전제로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서 서민들이 고금리 이자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입법에 여건이 반대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이자제한법 부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임승태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국회에 의원 입법이 제출된 이상 정부 입장에 서도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시장기능을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면 보완장치 마련 등을 위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여당의원 21명은 지난해 9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과 개인간, 개인과 개인간 금전과 기타 대체물의 대차거래 때 최고 이자율을 일정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화하는 것으로 1962년에 제정됐다. 이번에 이자제한법이 부활되면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폐지된후 9년만이다.

한편 재정부부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를 현행 66%의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 임 국장은 “대부업법은 이자제한법과는 별개의 법령”이라면서도 “이 역시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한다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車결함으로 교통사고

제조사가 배상 책임

법원 첫 판결 주목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D사와 이모·김모씨, 이들의 가족 등 12명이 “승합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8천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 현대차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승합차는 좌측

뒷바퀴와 연결된 베어링에 이상이 생겨 베어링과 차축이 서로 녹아 붙는 용착(熔着) 현상이 일어나 차축이 회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다니던 D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석 달 전인 2001년 5월 출고된 신차였으며 주행거리리는 베어링의 이론상 수명(1천300만km)에 훨씬 못 미치는 2만1천km에 불과했다.

차에 탔던 D사 직원 3명 중 이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김모(여)씨는 피부와 신경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은 뒤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어링의 구조·조립상태 등에 비춰볼 때 제조업자의 과실 없는 용착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건축물 대장 1면에 위법행위 표시

건축물 대장의 1면에 무허가, 위법시공 등 위법건축행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돼 건축물을 살 때 피해보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건축물 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화 하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축물은 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전산으로 자동반영되도록 했다. 지금은 우편으로 통보하게 돼 있어 신속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무허가,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건축물 대장의 첫 페이지 오른쪽 위에 기재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법사항 기재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맨 뒷 페이지에 참고사항 등으로 기재해 왔다.

한편 5년 계획으로 추진돼 온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말 보급되면 건축물 대장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병 휴대전화 정지편

기본요금 월 650원 인하

이르면 3월부터 현역으로 임명하는 군입대 자에 대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이 매월 650원 정도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하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천850원~4천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일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 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코인백	[광주]현금홍충차량 보인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17	02-2662-8351
㈜부림	2교대 생산직 모터조립 업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7	062-963-6462
㈜미트앤미트	출판편집디자인/기획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2000~2200	01/17	062-945-5003
㈜남성트레이딩	회계/경리 업무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1/19	062-523-0381
㈜현우기공	산업기능요원(현역·병역특례)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19	062-954-4369
금호리조트(주)금호패밀리랜드	놀이공원 operator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9	062-607-8013
㈜엘엘아트	실내 인테리어 시공/설계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19	062-234-0066
삼진MPS(주)	GS칼텍스 광주지사 사무직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26	02-558-3386
㈜우리자산	[종합금융자산회사] 신입 및 경력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6	062-384-6990
㈜드림랜드	일본어 현지 가이드(여행업)모집 - 유학경력 우대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26	062-227-4404
㈜화정정밀	기계설계 및 영업/자동화 기계 조립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955-9623
호텔 프리다	프리다 호텔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1/26	062-654-9999
㈜화인테크	인테리어 시공 관리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6	062-521-4567
㈜호원	지급/출납 및 회계실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0	062-945-831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일동후디스 ‘초유의 힘’ 출시

일동후디스(www.ildongfoodis.co.kr)는 초유의 각종 면역성분과 성장인자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영양식품 ‘초유의 힘’을 출시했다.

초유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포유류에서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분비되는 유즙으로 다량의 면역과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젖소의 초유에는 사람의 초유에 비해 훨씬 많은 면역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유의 힘’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자연 방목한 젖소의 초유만 사용한 것으로, 저온 가공법을 이용해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초유의 영양 및 기능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